

##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신 현 숙                      안 의 자                      강 병 은<sup>†</sup>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공적 자의식이 여러 부적응 지표들과 유의한 관계를 이룰지라도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모두가 사회불안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여고생 380명에게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율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유능성 욕구 충족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더욱 높았다. 셋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관계성 욕구 충족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더욱 높았다. 유능성 욕구나 관계성 욕구 충족이 높은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지라도 사회불안 수준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 욕구 충족은 공적 자의식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사회불안의 수준을 낮추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능성 욕구 충족과 관계성 욕구 충족은 공적 자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불안에 대한 공적 자의식의 부정적 영향을 낮추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사회불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학교심리개입에 주는 실제적 시사점과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적 자의식, 기본심리욕구, 사회불안, 조절효과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병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 hyeyum@outlook.kr

최근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 제 127호를 바탕으로 작성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교육부, 2016). 이 훈령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지필고사의 횟수와 내신 반영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높이고 교과특성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만으로도 성적산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즉,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행 등 수업 중 학생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중심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 반영비율의 상승은 과제 수행과 평가에 대한 심한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불안 수준을 더욱 높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대학 진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행평가 반영비율의 상승은 고등학생 집단에서 불안 수준의 상승과 이로 인한 부적응을 두드러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타인에 의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라고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비교적 경미한 수줍음에서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공포(social phobia)까지의 연속선을 이루는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이나 과제수행 상황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증상(예, 걱정, 염려, 집중력 감소), 정서적 증상(예, 수치심, 불편감), 행동적 증상(예, 회피 행동), 생리적 증상(예, 심박동 증가, 땀 흘림, 얼굴 붉힘)을 포함한다(홍영근, 이경숙, 2013; Baret & Cooper, 2014). 일반적으로, 사회불안은 개인적 요인(예, 유전적 취약성, 행동억제, 사회적 기술의 결함), 관계적 요

인(예, 부모와 또래의 지지 부족), 환경적 요인(예, 부정적 삶의 사건, 문화)에 의해 발생한다(Rapee & Spence, 2004).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회불안이 야기될만한 사회적 상황(예, 발표하기, 음악이나 체육활동 수행하기, 또래들과 대화하기 등)을 매일 경험한다(Beidel, Turner, & Morris, 1999; Hoffman et al., 1999). 사회불안이 심한 학생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회피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잃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며 우울, 학교폭력 피해, 약물남용, 자살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다(Beidel et al., 1999).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와 학생중심 교수법의 확대는 평가받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불안 수준을 더욱 높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청소년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기제를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을 찾는 것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사회불안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데,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비합리적 신념, 사회부과 완벽주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이루었고(김미령, 2011; 김환, 2015; 노고은, 이승연, 2016;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 이강아, 홍혜영, 2013; 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Higa, Philips, Chorpita, & Daleiden, 2008; Takishima-Lacasa, Higa-McMillan, Ebesutani, Smith, & Chorpita, 2014), 자기노출,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정체감 성취, 유능성 욕구 충족, 친구관계 질은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강병은, 신현숙, 2015; 김미령, 2011; 노고은, 이승연, 2016; 배

민영, 신현숙, 2015). 국내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공적 자의식, 부적응적 완벽주의, 역기능적 신념 등의 인지적 변인이 여타의 변인들(예, 부모의 양육방식, 행동억제, 수치심 등)에 비해 사회불안의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홍영근, 이경숙, 2013). 이 중에서 공적 자의식은 Fenigstein 등(1975)의 자의식 척도 개발 이래 여러 연구에서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인지적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예, 김환, 2015; 이강아, 홍혜영, 2013; Higa et al., 2008; Takishima-Lacasa et al., 2014).

자의식이란 주의와 사고를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이며,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공적 자의식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Fenigstein, 2009). 사적 자의식은 생리적 변화, 감정 상태, 사고 등 자신의 숨겨진 내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이고, 공적 자의식은 자신의 외모, 행동방식 등 타인에게 드러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이다(Fenigstein, 2009; Fenigstein et al., 1975). 청소년기에는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ability)이 발달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자의식이 증대한다(Harter, 2012). 특히, 중·고등학교시기 동안에 학생들이 능력별로 집단화되고 과제수행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빈번해짐에 따라 타인의 의견과 평가에 민감해지며 공적 자의식이 매우 높아진다(Eccles & Midgley, 1989; Harter, 2012).

청소년기에 크게 증가하는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이루고(예, 김미령, 2011; 이강아, 홍혜영, 2013; Higa et al., 2008),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이강아, 홍혜영, 2013). 그러므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거부적 반응에 민감하고, 주변을 살펴 얻은 사회적 단서를 이용해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며(Fenigstein, 1979; Fenigstein et al., 1975), 외적 요구나 부분적으로 내재화된 의무에 의해 행동을 시작하는 통제 지향성이 특징적이다(Deci & Ryan, 1985). 이처럼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기에 대한 예민한 인식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걱정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고 이로 인해 사회불안 수준을 상승시킨다(이강아, 홍혜영, 2013; Schlenker & Leary, 1982).

그러나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의 선행요인이기는 하지만 공적 자의식이 자동적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지는 않는다(Fenigstein et al., 1975).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지만 낮은 상관(.09)에서 중간 크기 상관(.57)의 범위 안에서 일정하지 않았다(정미정, 정현희, 2002; Higa et al., 2008). 심지어 일부 연구(예, 김정내, 하정희, 2006)에서는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변인의 관계가 연구마다 일관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 두 변인의 관계에서 제 3의 변인이 조절변인(moderator)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절변인은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간 관계의 크기나 방향을 바꿈으로써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화시키는 변인이다(Holmbeck, 1997).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적 특

성 변인일지라도 사회불안과 일관성 없는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에 대한 공적 자의식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조절변인의 탐색과 확인은 사회불안의 예방 및 개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시도가 일부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집단에서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사회불안 수준이 높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자기정체감 성취의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김미령, 2011). 자기정체감 성취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고한 반면, 자기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지라도 사회불안 수준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자기정체감을 성취한 사람들은 공적 자의식이 높을지라도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어적 도피 행동반응 대신 적극적 자기제시 행동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Zajonc, 1965; 김미령, 2011에서 재인용). 이로써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가 제 3의 변인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를 통해 자기정체감 성취와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의 관계가 지지된 바 있다.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기정체감 성취 양상을 몇 개의 군집으로 묶었을 때, 자기정체감 미성취 군집들(유실, 반추적 유예, 걱정 없는 혼미, 분산된 혼란, 비변별)에 비해 자기정체감 성취 군집의 자율성 욕구 충족과 유능성 욕구 충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실 군집과 반추적 유예 군집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정체

감 미성취 군집들보다 자기정체감 성취 군집의 관계성 욕구 충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Luyckx, Vansteenkiste, Goossens, & Duriez., 2009).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있다고 보고한 대학생들은 4주 후에 자기정체감 하위요인인 전념하기(commitment making), 전념 일체화(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 폭넓은 탐색(exploration in breadth)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Faye와 Sharpe(2008)의 연구에서도 자기정체감은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자기정체감 성취와 관련되고 자기정체감 성취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조절효과는 검증을 요한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의 미니이론으로 간주되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사회불안에 대한 공적 자의식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선천적이며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는 자율성 욕구(the need for autonomy), 유능성 욕구(the need for competence), 관계성 욕구(the need for relatedness)가 있다(Deci & Ryan, 2000). 첫째, 자율성 욕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이며 자신의 행동을 시작하고 조절함에 있어서 자기지시와 자기승인을 경험하려는 심리적 욕구이다(Deci & Ryan, 2000; Reeve, 2008/2011). 자기 행동의 주체로서 목표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구할 때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고,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심리적 자유를 느낀다(Luyckx et al., 2009; Ryan & Deci,

2000). 둘째, 유능성 욕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이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며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익히고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며 숙달하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한다(Deci & Ryan, 2000).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이라기보다 개인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지각으로서 유능성 욕구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정교화 하도록 돕는다(김아영, 2010a; Reeve, 2008/2011). 셋째, 관계성 욕구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타인과 친밀하고 정서적인 유대를 경험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다(Deci & Ryan, 2000).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배려를 받으면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낀다(Ryan & Deci, 2000).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의식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다(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다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 사고(특히, 상상의 청중)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적 모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Elkind, 1967). 이때 개인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기점검과 자기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체계(self-system)를 형성하는데(Markus & Cross, 1990),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인식은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기체계를 이루는 개인은 자신이 효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이 자기와 일관성을 이루며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는 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은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며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경

험을 하게 된다(이강아, 홍혜영, 2013).

한편,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건강과 적응에 기여하는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nutrients)으로 기능한다.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는 연령, 성별,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개인의 발달과 정신건강 및 안녕을 증진시키는 과정은 보편적이다(Ryan & Deci, 2002). 무엇보다도 기본심리욕구는 결핍욕구가 아닌 성장욕구이므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내재 동기를 유발하여 학업성취, 심리적 안녕, 긍정적 행동 발달을 이루게 하는, 청소년 발달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작용한다(Niemiec & Ryan, 2009; Walls & Little, 2005). 또한 개인이 이러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여부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의 차이와 무관하게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유발되고 긍정적 정서와 활기가 상승한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Reis et al., 2000; Ryan & Deci, 2000).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정서적 적응,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 학교행복감, 학업성취, 희망,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김성수, 2015; 신현숙, 오민근, 2016; 유신복, 손원숙, 2013; 이수진, 2011; Chen et al., 2015; Raufelder et al., 2014; Tian, Han, & Huebner, 2014), 사회불안, 수치심, 우울, 외로움과 부적 관계를 이룬다(강병은, 신현숙, 2015; 김성수, 2015; 김아영, 이명희, 2008; 조영미, 이희경, 2013). 따라서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사회불안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모두 정신건강과 안녕감 및 학업성취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이지만 자신의 과제해결능력이 우수하다고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과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어쨌든 과제를 수행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Sheldon, Ryan, & Reis, 1996). 우리나라와 중국의 청소년 대상 연구(노현중, 손원숙, 2014; Tian et al., 2014)에서는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간 상관계수가 중간 크기의 범위(.39 ~ .57)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는 항상 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김아영, 2010a; Reeve, 2008/2011). 즉,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변인이다. 따라서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구분하고,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3요인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고생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연구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수준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중학생 집단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기 때문이다(신현숙, 류정희, 안의자, 강병은, 오민근, 2015;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Higa et al., 2008; La Greca & Lopez, 1998; Takishima-Lacasa et al., 2014). 이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고 사회불안에 취약한 여고생을 위한 개입이 여타의 집단을 위한 개입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찾는 연구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여고생들이 학업수행이나 평가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의 요소를 파악하

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과정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두 곳과 특성화 여자고등학교 한 곳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380명이다.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일반고는 1,537개교(75.5%)이고 특성화고는 498개교(24.5%)이다(교육부, 2015).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유형별 비율과 유사하게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90명(50.0%), 2학년 190명(50.0%)이었으며, 일반계고 268명(70.5%), 특성화고 112명(29.5%)이었다.

자료수집은 2015년 1, 2학기 말에 이루어졌다. 설문실시에 앞서, 연구자가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연구목적, 비밀보장과 자발적 참여에 관한 사항, 설문지 작성요령 및 기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다음,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교사가 감독하는 가운데 학급단위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설문 실시예 약 15분이 소요

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총 395부 중 중복응답, 무응답, 지그재그 등 일정 패턴의 응답이 있는 15부를 제외하고 총 380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정보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M 알고리즘(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결측값을 처리하였다.

#### 측정도구

#####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내외 청소년 자의식 연구(예, 신현숙 등, 2015; 이선주, 하은혜, 2010; Higa et al., 2008)에서 사용된 바 있는 Fenigstein 등(1975)의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의 한국어 번안본(신현숙 등, 2015)을 실시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청소년용 자의식 척도(Takishima-Lacasa et al., 2014)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만을 묻는 것과 달리, Fenigstein 등(1975)의 척도는 외모, 사회적 행동 방식 등 다방면에 관한 자의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의 세 하위척도를 구분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 하위척도 7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표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현숙 등(2015)이 보고한 공적 자의식 하위척도의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70이었다.

##### 사회불안

La Greca와 Lopez(1998)의 청소년용 사회불

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양재원 등(2008)이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재원 등(2008)이 보고한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사회불안 전체척도 .9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8,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74,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69였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관성지수는 차례로 .94, .92, .85, .80이었다.

#####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 욕구(6문항), 유능성 욕구(6문항), 관계성 욕구(6문항)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매우 그렇다)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보고한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 )는 전체척도 .87, 자율성 욕구 .70, 유능성 욕구 .75, 관계성 욕구 .79였다. 이 연구에서는 차례로 .89, .76, .82, .85였다.

#####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0과 IBM

SPSS Amos 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불안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은 사회불안 척도의 하위요인들로 설정하였다.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공적 자의식은 각각 단일요인이므로 각 요인을 한 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항목 대 구인 균형(item to construct balance) 방법으로 세 개의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어(배병렬, 2014; 서영석, 2010), 잠재변인별로 3개의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예, 공적 자의식1, 공적 자의식2, 공적 자의식3).

첫째,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별 기술통계값과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별 분포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예언변인, 결과변인, 조절변인이 각각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을 포함한 경우에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잠재변인 간 관련성과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합도지수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모수불일치성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TLI와 CFI가 .95이상이거나 RMSEA가 .05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가진 모형으로, TLI와 CFI가 .90~.95이거나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가진 모형으로, RMSEA가 .08~.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를 가진 모형으로 해석된다(Browne & Cudeck, 1993).

셋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는 연속변인이므로 Marsh, Wen, Hau(2004)의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항 잠재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생 잠재변인의 평균을 제약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측정변인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감소시켰다. Marsh 등(2004)이 추천한 짝짓기 전략(matched -pair strategy)을 사용하여 각각의 조절변인에 관한 모형에서 세 개의 상호작용항 지표를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경합모형에서는 요인별 기본심리욕구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상호작용항에서 결과변인에 이르는 경로계수를 0으로 고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은 내재된 모형(nested models)이므로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Kline, 2010).  $\chi^2$  차이가 유의한 경우, 연구모형을 경합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한다. 다음,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이 결과변인에 이르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예언변인과 조절변인의 고집단( $M + 1SD$ )과 저집단( $M - 1SD$ )을 구분하고 집단별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여 조절효과를 해석하였다.

## 결 과

###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값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값은 표 1과 같다.

공적 자의식 측정변인들과 사회불안 측정변인들 간 정적 상관이 대체로 유의하였다. 공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값 (N = 380)

잠재변인 측정변인	공적 자의식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사회불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공적 자의식1	-														
2.공적 자의식2	.49***	-													
3.공적 자의식3	.60***	.53***	-												
4.자율성 욕구1	.04	.00	.12*	-											
5.자율성 욕구2	-.08	-.12*	-.03	.57***	-										
6.자율성 욕구3	.09	.18**	.21***	.48***	.39***	-									
7.유능성 욕구1	.17**	.19***	.31***	.41***	.39***	.47***	-								
8.유능성 욕구2	.08	.10	.18**	.31***	.35***	.41***	.57***	-							
9.유능성 욕구3	.04	.10	.18***	.31***	.25***	.38***	.57***	.59***	-						
10.관계성 욕구1	.17**	.11*	.23***	.33***	.18***	.34***	.34***	.28***	.34***	-					
11.관계성 욕구2	.10	.10	.17***	.47***	.27***	.45***	.47***	.43***	.42***	.56***	-				
12.관계성 욕구3	.17**	.13*	.21***	.37***	.17**	.32***	.43***	.31***	.39***	.60***	.73***	-			
13.부정적 평가 두려움	.34***	.42***	.29***	-.43***	-.45***	-.24***	-.25***	-.30***	-.20***	-.20***	-.40***	-.27***	-		
14.새로운 상황 회피·불안	.12*	.21***	.13*	-.35***	-.45***	-.24***	-.34***	-.33***	-.26***	-.22***	-.28***	-.24***	.58***	-	
15.일반적 상황 회피·불안	.10*	.19***	.04	-.46***	-.51***	-.31***	-.40***	-.35***	-.26***	-.34***	-.40***	-.35***	.65***	.75***	-
평균	3.77	3.60	3.71	4.35	4.01	4.39	4.47	3.70	4.10	4.77	4.74	4.83	2.93	3.08	2.49
표준편차	.66	.67	.63	.90	.99	.91	.89	.95	.85	.83	.79	.73	.88	.84	.79
왜도	-.12	-.20	-.11	-.16	-.03	-.20	-.15	.03	-.09	-.34	-.17	-.22	.21	-.11	.26
첨도	-.41	-.32	-.41	-.14	-.53	-.39	-.56	-.08	.01	-.27	-.51	-.37	-.62	-.21	-.05

\*p < .05. \*\*p < .01. \*\*\*p < .001.

적 자의식 측정변인들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측정변인들 중 일부를 제외한 변인들 간 상관성이 유의하였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측정변인들과 사회불안 측정변인들 간 부적 상관성이 모두 유의하였다.

한편, 측정변인 각각의 왜도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가 절대값 8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 자율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에 이르는 모든 회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 = .857, CFI = .896, RMSEA = .093으로 측정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정도가 보통 적합도 기준에 근접하였다. 자율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

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chi^2$ 값 차이가 .0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합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율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지지되지 않았다.

경합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첫

째, 공적 자의식 → 사회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39, \beta = .30, p < .001$ ). 이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율성 욕구 → 사회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88, \beta = -.70, p < .001$ ). 이는 자율성 욕구가 충족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성 욕구 충족은 공적 자의식과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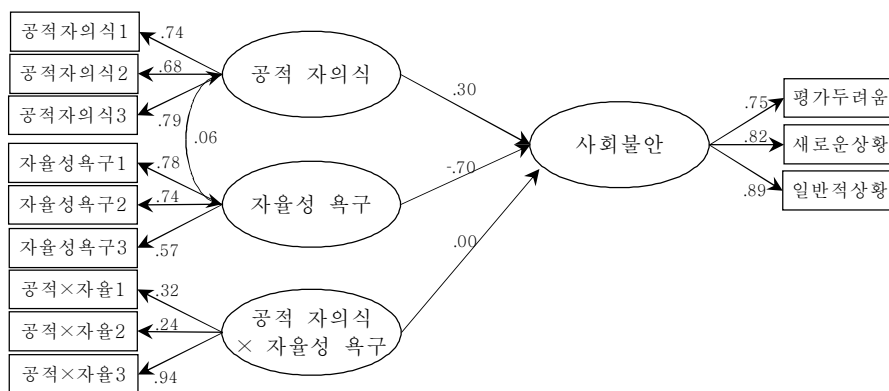
표 2. 자율성 욕구 충족에 관한 모형 적합도

모형	$\chi^2$	df	p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238.355	58	.000	.863	.880	.091 [.079, .103]
경합모형	238.406	59	.000	.866	.880	.090 [.078, .102]
차이	.051	1	.821			

표 3. 자율성 욕구 충족에 관한 경합모형에서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t
공적 자의식 → 사회불안	.39	.30	.07	5.40***
자율성 욕구 → 사회불안	-.88	-.70	.11	-8.41***

\*\*\*  $p < .001$ .



주. 공적 자의식×자율성 욕구→사회불안 경로(0으로 고정됨)와 공적 자의식과 자율성 욕구 간 공분산( $p > .05$ )을 제외한 모든 표준화 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자율성 욕구 충족에 관한 경합모형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율성 욕구 충족 그 자체가 사회불안의 감소와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에 이르는 모든 회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의 TLI = .885, CFI = .917, RMSEA = .085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보통 적합도에 해당되었다.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chi^2$ 값 차이가 유의하여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의 TLI와 CFI가 .90보다 높고, RMSEA가 .08보다 낮아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 그림 2와 같다. 첫

째, 공적 자의식 → 사회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56, \beta = .44, p < .001$ ). 이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유능성 욕구 → 사회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66, \beta = -.62, p < .001$ ). 이는 유능성 욕구 충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공적 자의식 × 유능성 욕구 → 사회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30, \beta = -.15, p < .05$ ). 즉,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공적 자의식과 유능성 욕구 충족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산출된 회귀방정식은  $Y(\text{사회불안}) = .558 X(\text{공적 자의식}) - .659 Z(\text{유능성 욕구}) - .303 XZ(\text{공적 자의식} \times \text{유능성 욕구})$ 이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유능성 욕구와 공적 자의식의 저집단( $M - 1SD$ )과 고집단( $M + 1SD$ )을 구분하였다. 유능성 욕구 저집단의 회귀방정식은  $Y_{\text{low}} = .356 + .788 X(\text{공적 자의식})$ 이고, 유능성 욕구 고집단의 회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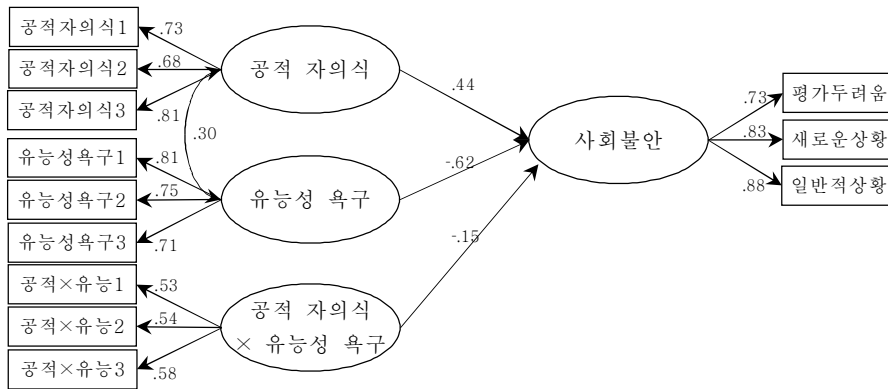
표 4. 유능성 욕구 충족에 관한 모형 적합도

모형	$\chi^2$	df	p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183.519	58	.000	.908	.919	.076 [.063, .088]
경합모형	188.891	59	.000	.907	.917	.076 [.064, .089]
차이	5.372	1	.020			

표 5. 유능성 욕구 충족에 관한 연구모형에서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공적 자의식 → 사회불안	.56	.44	.08	6.77***
유능성 욕구 → 사회불안	-.66	-.62	.08	-8.52***
공적 자의식 × 유능성 욕구 → 사회불안	-.30	-.15	.13	-2.26*

\*  $p < .05$ . \*\*\*  $p < .001$ .



주. 모든 표준화 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유능성 욕구 충족에 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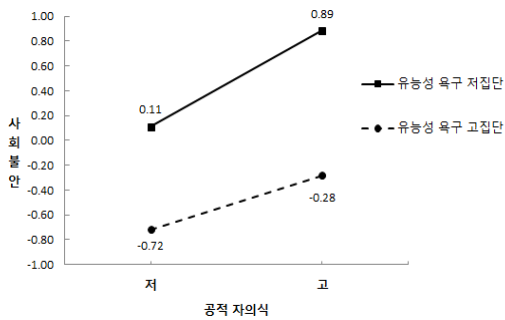


그림 3.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정식은  $Y_{high} = -.501 + .328 X(\text{공적 자의식})$ 이다. 각 집단의 회귀선은 그림 3과 같다. 유능성 욕구 고집단에 비해 저집단에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적불안의 정적 관계가 더 높았다. 유능성 욕구 저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불안이 높지만, 유능성 욕구 고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더라도 사회적불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각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에 이르는 모든 회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의 TLI = .884, CFI = .916, RMSEA = .089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chi^2$  값 차이가 유의하여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의 TLI와 CFI가 .90보다 높고, RMSEA가 .08보다 낮아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 그림 4와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 사회적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51, \beta = .39, p < .001$ ). 이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관계성 욕구 → 사회적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56, \beta = -.56, p < .001$ ). 이는 관계성 욕구 충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불안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공적 자의식 × 관계성 욕구 → 사회적불안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36, \beta = -.19, p < .01$ ). 즉, 공적 자의식과 사회적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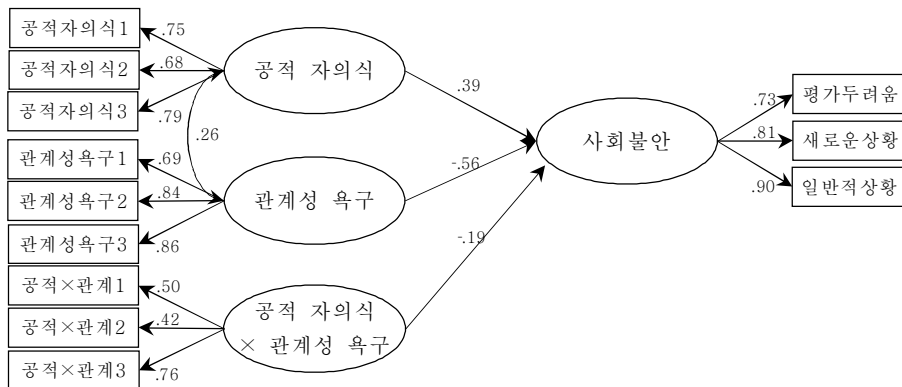
표 6. 관계성 욕구 충족에 관한 모형 적합도

모형	$\chi^2$	df	p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192.744	58	.000	.910	.921	.078 [.066, .091]
경합모형	202.897	59	.000	.905	.915	.080 [.068, .092]
차이	10.153	1	.001			

표 7. 관계성 욕구 충족에 관한 연구모형에서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t
공적 자의식 → 사회불안	.51	.39	.08	6.27***
관계성 욕구 → 사회불안	-.56	-.56	.06	-8.80***
공적 자의식 × 관계성 욕구 → 사회불안	-.36	-.19	.12	-2.97**

\*\*p < .01. \*\*\*p < .001.



주. 모든 표준화 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4. 관계성 욕구 충족에 관한 연구모형

의 관계에서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공적 자의식과 관계성 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산출된 회귀방정식은  $Y(\text{사회불안}) = .505 X(\text{공적 자의식}) - .563 Z(\text{관계성 욕구}) - .355 XZ(\text{공적 자의식} \times \text{관계성 욕구})$ 이다. 관계성 욕구 저집단의 회귀방정식은  $Y_{\text{low}} = .304 + .746 X(\text{공적 자의식})$ 이고, 관계성

욕구 고집단의 회귀방정식은  $Y_{\text{high}} = -.383 + .264 X(\text{공적 자의식})$ 이다. 각 집단의 사회불안 점수를 산출하여 나타난 회귀선은 그림 5와 같다. 관계성 욕구 고집단에 비해 저집단에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정적 관계가 더 높았다. 그러므로 관계성 욕구 저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지만, 관계성 욕구 고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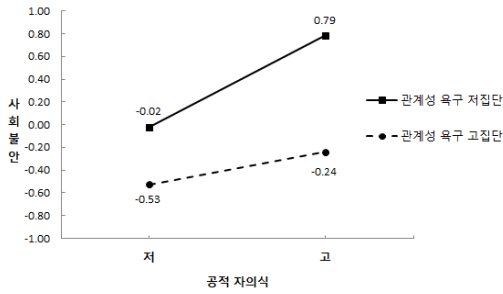


그림 5.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라도 사회불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관계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충족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요인을 각각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세 연구모형에서 공적 자의식 → 사회불안의 정적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여고생일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함을 의미하며,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김미령, 2011; 김환, 2015; 한정숙 등, 2014; Higa et al., 2008). 따라서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을 높이는 취약한 인지적 특성으로 작용함이 재확인되었다.

둘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자율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성 욕구 → 사회불안의 부적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자율성 욕구가 충족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조영미, 이희경, 2013). 그러므로 자율성 욕구 충족이 공적 자의식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대한 공적 자의식의 영향을 상쇄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율성 욕구 충족 그 자체가 사회불안 수준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양에 비해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율성 욕구 충족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예, Kim & Park, 2006), 자율성 욕구 충족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하며(김수연, 조한익, 2013), 사람들은 자율성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노현중, 손원숙, 2014; Ryan & Deci, 2000).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불안에 대한 자율성 욕구 충족과 공적 자의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자율성 욕구 충족이 사회불안의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 수준과 무관하게, 자율성 욕구의 충족 경험이 여고생의 사회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유능성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은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유능성 욕구가 충족된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사회불안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관계가 자기정체감 성취에 의해 조절된다는 김

미령(2011)의 연구결과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와 사회불안 간 관계가 유능성 욕구 충족에 의해 조절된다는 강병은과 신현숙(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 한 것처럼 나타내려 한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구별되지만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모와 행동방식을 신경 쓴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매우 유사한 변인이다. 즉,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모와 행동방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고생일지라도 유능성 욕구가 충족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능성 욕구의 충족 경험은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여고생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충요인(buffer)으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지라도 사회불안 수준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여고생의 경우,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의 초점을 둘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주의의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높을지라도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배려와 친밀감 및 소속감을 경험하는 여고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고생의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은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남학생에 비해 공적 자의식 수준

이 높아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변인인 유능성 욕구 충족과 관계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관계성 욕구 충족이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노현중, 손원숙, 2014),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우울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김성수, 2015)를 고려할 때,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실제적 시사점을 크게 개인 차원의 개입과 환경 차원의 개입으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고 사회불안 증상이 이미 발현된 여고생을 위한 개인 차원의 심리개입에서는 기존의 상담기법에 더해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의 충족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의 감소를 위해 실시된 체계적 둔감화와 인지행동치료의 상담기법에 더해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의 실행은 부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상담 초기에 그리고 매 회기마다 상담의 방향과 목적을 구체화하는 등 성공에 이르는 구조(structure)와 적절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내담학생의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상담자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Ryan & Deci, 2008). 이를 통해 여고생의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성 욕구 충족이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내담자가 상담과정에 더욱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즉, 치료에 대해 내적 인과 소재를 지각할 때), 학습과 행동 변화를 통합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Ryan & Deci, 2008, p. 187)는 점과 자율성 욕구가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노현중, 손원숙, 2014)을 고려할 때, 자율성 욕구 또한 여고생의 사회불안 감소에 기여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양자관계에서의 안정감에 기여하고(La Guardia et al., 2000),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학생 간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상담결과의 내재화에 도움을 주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Luyckx et al., 2009; Ryan & Deci, 2008).

또한 아직 사회불안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기반의 예방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은 대체로 과제수행이나 평가와 관련되므로 일상적인 교과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해결방안을 구조화함으로써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과제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을 제시하되 실패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안내함으로써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김아영, 2010b). 또한 학교장면에서 또래나 교사들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몇 가지 일상적인 방법을 학교차원에서 공유하고, 이를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학교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Reeve, 2008/2011). 이 연구의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개입요소로 포함하는 학교기반의 예방이 사회불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여고생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 차원의 개입 방안은 학교풍토의 조성과 관련되는데,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거나 사회불안이 심각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여고생의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결정을 지지하며 자기주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아영, 2010b; Reeve, 2008/2011).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학습과제와 과제 작성양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습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패내성이 높은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은 학생들의 유능성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즉 실패내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더 이상의 과제수행을 회피하며 유능성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지만(Reeve, 2008/ 2011), 실패에 관대한 즉 실패내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하고 새로운 문제해결 전략을 탐색·적용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함으로써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킨다(Clifford, 1990). 여고생의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공적 자의식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면, 학교의 실패내성을 높이는 방안은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 차원의 효과적 개입으로



고려된다.

한편, 관계성 욕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가정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보여주고 학생을 존중하며, 또래관계에서 수용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Niemiec & Ryan, 2009). 실제,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관계성 욕구가 충족될 때 학생의 학교참여,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였다(Furrer & Skinner, 2003; Martin & Dowson, 2009; Raufelder et al., 2014).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고생들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할 때 사회불안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여고생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풍토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제적 시사점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의 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지지된 모형이 여자 고등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성별을 불문하고 고등학생 시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동등성을 검증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밝혀진 모형이 여자 고등학생들에게만 적합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G광역시와 J도의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들을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여자 고등학생들의 특징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의 일반고와 특성화고 비율을 고려하였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여고생들은 인구학적 배경이나 심리사회적 특징에서 상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 유형을 고려한 유층무선표집의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는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위험요인이 초래할 부적응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변인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라고 한다(Rutter, 1987). 보호요인은 위험의 발생에 대해 작용하므로 시간적 고려가 필요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언변인, 조절변인, 결과변인을 모두 같은 시점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경로를 해석하지 못하였다. 측정 시점 간 간격을 두고 종단자료를 수집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면, 시간 경과에 따른 변인 간 순차적 관계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공적 자의식이 향후 사회불안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완화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은, 신현숙 (201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능성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교육연구*, 38, 77-95.
- 교육부 (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예고」. 교육부 공고 제 2016-62호, 별지 제9호 1-다 항.
- 김미령 (2011). 공적 자의식과 대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 성취의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 *상담학연구*, 12(2), 721-738.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수연, 조한익 (2013).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욕구만족,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307-328.
- 김아영 (2010a). 자기결정성 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아영 (2010b).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19(1), 311-326.
- 김정내, 하정희 (2006).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남녀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107-131.
- 김환 (2015). 사회불안과 공적 자의식, 초점주의 역기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5(3), 519-539.
- 노고은, 이승연 (2016).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205-225.
- 노현중,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55-375.
- 배민영, 신현숙 (2015). 친구관계의 질이 사회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4(3), 177-197.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 중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대인불안에 이르는 경로 탐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합리적 신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35-353.
- 신현숙, 류정희, 안의자, 강병은, 오민근 (2015). 청소년의 사적·공적 자의식의 성차 및 발달적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35.
- 신현숙, 오민근 (2016). 대학생의 심리적 욕구와 주관적 안녕감. *교육연구*, 39, 85-106.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유신복, 손원숙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및 학

- 교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179-200.
- 이강아, 홍혜영 (2013).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선주, 하은혜 (2010).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55-68.
-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정미정, 정현희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 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의식과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3), 791-812.
- 홍영근, 이경숙 (2013). 사회공포 및 사회불안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2011년에서 2013년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295-31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DSM-5). Washington, DC: Author.
- Barret, P., & Cooper, M. (2014).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of social anxiety.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 (Eds.),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3rd ed.) (pp. 311-33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9).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6), 643-65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er Kaap-Deeder, J. et al.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Clifford, M. M. (1990). Students need challenge, not easy success. *Educational Leadership*, 48, 22-26.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Eccles, J. S., & Midgley, C. (1989). Stag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early adolescents. In R. Ames & C.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3, pp. 139-18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Faye, C., & Sharpe, D. (2008). Academic motivation in university: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dentity form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4), 189-199.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75-86.
- Fenigstein, A. (2009).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pp. 495-511). New York: Guilford.
- Fenigstein, A., Scheier, M. R.,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148-62.
- Harter, S. (2012).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ound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 Higa, C. K., Philips, L. K., Chorpita, B. F., & Daleiden, E. L. (2008). The structure of self-consciousness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and relations to social anxiet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 261-271.
- Hofmann, S. G., Albano, A. M., Heimberg, R. G., Tracey, S., Chorpita, B. F., & Barlow, D. H. (1999). Subtypes of social phobia in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9(1), 15-18.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Kim, U., & Park, Y. S. (2006).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 287-292.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uyckx, K., Vansteenkiste, M., Goossens, L., & Duriez, B. (2009). Basic need satisfaction and identity formation: Bridging self-determination

- theory and process- oriented identit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76-288.
- Markus, H. R., & Cross, S. E. (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576-608). New York: Guilford.
- Marsh, H. W., Wen, Z., & Hau, K. T. (2004).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latent interactions: Evaluation of alternative estimation strategies and indicator construction. *Psychological Methods*, 9(3), 275-300.
- Martin, A. J. & Dowson, M. (200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otivation, engagement, and achievement: Yields for theo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9, 327-365.
- Niemiec, C. P., & Ryan, R. M. (2009).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7(2), 133-144.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37-767.
- Raufelder, D., Kittler, F., Braun, S. R., Lätsch, A., Wilkinson, R. P., & Hoferichter, F. (2014). The interplay of perceived stress,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engagement in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5(4), 405-420.
- Reeve, J. (2011). *동기와 정서의 이해*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5th ed)]. (정봉고, 윤병수, 김아영, 도승이, 장형심 역). 서울: 박학사.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psychotherapy: The motivational basis for effective change. *Canadian Psychology*, 49(3), 186-193.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heldon, K. M., Ryan, R.,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 Takishima-Lacasa, J. Y., Higa-McMillan, C. K., Ebesutani, C., Smith, R. L., & Chorpita, B. F. (2014).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in youth: The revised self-consciousness scales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26(4),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92-1306.

Tian, L., Han, M., & Huebner, E. S. (2014).

Preliminary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school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37(3), 257-267.

Walls, T. A., & Little, T. D. (2005). Relations

among personal agency,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23-31.

원 고 접 수 일 : 2016. 10.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1. 29.

최종게재결정일 : 2016. 12. 26.

## **Moder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in High School Girls**

**Hyeonsook Shin**

**Euija Ahn**

**Byeongeun Kang**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literature has shown that public self-consciousness is related to various indicators of maladjustment; however, not all of those who are high in public self-consciousness experience social anx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Three hundred and eighty high school gir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derating effect of autonomy need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was not significant. Second, both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and that of relatedness need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The negative effect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social anxiety was stronger in the low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group and in the low relatedness need satisfaction group than in the high need satisfaction groups. That is, in the low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group and in the low relatedness need satisfaction group, the higher the level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anxiety. In contrast, in the high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group and in the high relatedness need satisfaction group, social anxiety did not increase to the extent of the increase in public self-conscious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whereas autonomy need satisfaction serve as a psychological nutriment for reducing social anxiety without interacting with public self-consciousness, competence need satisfaction and relatedness need satisfaction serve as buffers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social anxiety. Finally,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intervening with high school girls suffering from social anxiet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ublic self-consciousn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social anxiety, moderating effect